

3장

우리나라 고지도와 근대지도의 특색

1. 고지도의 특색

원시인들도 땅에 간단한 지도를 그려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지도는 지구 표면의 전체나 일부를 지면에 그린 것으로 지역 공간의 투영일 뿐만이 아니라 땅위에서 이루어진 정치, 사회, 문화적 모든 현상(現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새긴 그림이다. 그러므로 지도는 작성하는 목적이나 시기에 따라 수록한 정보의 내용이 다르며, 지도가 제작된 당시인들의 인식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고지도는 서양이나 중국 일본 등의 고지도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이 있다. 현존하는 고지도는 대부분 조선시대 제작한 지도들인데 이 지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고지도를 한 사람이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4개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한 팀을 이루어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단종 2(1454)년에 수양대군이 『경성도(京城圖)』를 만들고자 정척, 강희안, 양성지, 안귀생, 안효례, 박수미 등을 대동하고 삼각산의 보현봉에 올라가 도성의 산형수맥을 살펴서 『경성도』를 만들었다는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세조가 8도 및 서울의 지도를 만들고자 하여, 예조 참판 정척(鄭陟), 집현전 직제학 강희안(姜希顔), 직전 양성지(梁誠之), 화원(畫員) 안귀생(安貴生), 상지(相地) 안효례(安孝禮), 산사(算士) 박수미(朴壽彌) 등과 더불어 삼각산·보현봉에 올라가서 산의 형상과 물의 줄기를 살펴서 서울의 지

도를 만들었다.

이때 참여했던 인물들은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4개의 그룹의 전문가였다. 첫 번째 그룹은 지도제작의 전문가들이다. 정척은 세종의 명으로 함경·평안·황해 등지의 산천을 직접 조사하여 8도지도로 제작한 지도제작의 전문가였으며, 양성지는 지도제작에 밝았기 때문이었다. 양성지는 고려사 지리지 편찬도 담당하였고, 동국여지승람 편찬에도 참여하였으며, 하삼도(下三道)를 조사한 후 8도지도를 만든 조선 초기 최대의 지리학자였다. 두 번째 그룹은 화가 그룹이었다. 강희안은 학자이며 화가로서 유명하였고, 안귀생은 화공이었다. 세 번째 그룹은 풍수지리학자들이었는데, 안효례는 산천형세를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상지관이었다. 네 번째 그룹은 측량가인데 박수미는 계산에 밝은 산사(算士)였다. 이와 같이 세조가 대동했던 6명은 당대의 최고 전문가들로 4개 그룹이 한 팀이 되어 지도를 제작하였고 이러한 전통은 후대에까지 계속되었다.

둘째, 산맥과 강줄기를 중요시하여 그렸다. 『조선방역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고지도들이 백두대간을 비롯하여 산맥과 강줄기를 반드시 그렸다. 중국의 고지도나 일본의 고지도 등에도 산과 강을 표시하고 있지만 그들 지도에서는 산맥이 아니라 산을 단독적으로 그렸는데 비하여 우리나라 고지도에서는 산을 연결하여 산맥으로 표시하였다. 이것은 신라 때 수입된 풍수지리의 영향 때문이며 지도를 제작할 때 풍수가인 상지관들이 꼭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세조가 보현봉에 올라가 서울지도를 그릴 때에도 상지관인 안효례를 데리고 갔으며, 정척과 양성지가 전국을 측량하여 『동국지도』를 만들 때에도 상지관을 대동하였으며, 조선후기 산성을 쌓고 산성도를 제작할 때에도 상지관이 참여했었다.

셋째, 백두산을 반드시 표기한 점이다. 우리 민족은 백두산을 우리 민족의 발상지로 여겨 신성시 하였으며 마음의 고향으로 여겼다. 이침이 조선 초기에 『삼국도』를 만들고 쓴 서문에 의하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구불구불 내려오다가 철령에 이르러 갑자기 솟아오르며 금강산이 되고 거기서 중첩하여 태백산, 소백산, 죽령, 계림령, 추양산이 되고 한 갈래는 운봉으로 뻗어 지리산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대체 우리나라의 지형은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으며 중앙은 빨고 아래쪽은 파리하다. 백두산은 머리가 되고, 대령(大嶺)은 등성마루가 되어 마치 사람이 머리를 기울이고 등을 굽히고 선 것 같다. 그리고 대마도(對馬島)와 제주도(耽羅)는 양쪽 발 모양으로 되어있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백두산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백두대간이 우리의 등허리가 되며, 대마도와 제주도는 우리의 양쪽 발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일찍부터 우리나라를 인체(人體)

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를 호랑이로 표현하거나 토끼로 표현하는 것은 전통적인 국토관과 어긋나는 것이다.

넷째, 고지도를 제작할 때 화공들이 참여하여 그렸기 때문에 지도이지만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 세조가 보현봉에 올라가 『경성도』를 그릴 때 화가 강희안이 참여했으며 정척이 이북삼도를 양지하여 산천형세를 살필 때에도 화공을 대동했었다.

다섯째, 울릉도와 우산도를 반드시 표기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실히 표현하였다. 우산도는 오늘날의 독도를 지칭하는데 17세기 안용복사건이 있기 전에는 우산도를 대륙 쪽에 표기하였다. 이는 3남지방 어민들이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갈 때에 해류를 타고 이동하는데 해류의 영향으로 어선이 독도에 먼저 도착하고 후에 울릉도에 도착하기 때문에 독도를 울릉도보다 육지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표시하였다. 안용복 사건 이후에는 조정에서 수토관(搜討官)을 파견하여 이 지역의 지도를 그려오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정확한 지리인식이 생겨 우산도 즉 독도를 울릉도의 동남쪽에 정확히 표기하여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여섯째, 조선시대 선조들은 우리나라를 3천리가 아니라 “만리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만주까지 포함하는 지도를 그렸다. 당시 지리학의 제일인자였던 양성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우리의 국경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 나라의 크기는 거의 만리(萬里)이다” 라고 하였다. 또 노사신(盧思愼)이 쓴 『동국여지승람』 전문에서도 우리의 국토가 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서거정은 『동국여지승람』 서문에서 “고려는 서북지방은 압록강은 못 넘었지만 동북지방은 선춘령(先春嶺)을 경계로 해서 고구려지역을 더 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전기에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만주까지 포함하는 만리라는 영토 의식이 있었다. 이를 반영한 것이 『조선방역도』인 것이다. 그러나 1712년 청나라와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이후에는 압록강과 토문강을 국경으로 한 전국도가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상태

2. 근대지도의 특색과 분류

1) 근대지도의 특색

(1) 근대의 개념

근대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기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근대의 시기를 구분하는 경우 학자에 따라서도 그 견해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시대구분도 세계사, 동양사 그리고 한국사에서 명확히 정리되어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근대는 1876년 강화도조약 때부터로 보는 입장이 많다.

여기서는 근대의 시기를 개항기 이후 일제강점기까지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개략적인 지도 제작이나 특색 등을 서술하는 데는 해방이후도 근대의 시기에 삽입하였다.

본고에서는 개항기의 지도제작은 측량작업이 기초가 되므로 측량침략의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 운양호사건, 강화도조약, 측량저항사 등을 먼저 정리하고 측량에 관한 중앙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지아문에 관해 먼저 서술하였다.

(2) 운양호사건과 측량침략의 연혁

① 운양호사건

일본은 1875년 9월 군함 운양(雲揚)을 조선근해에 파견하여 항로측량의 명목 하에 시위운동을 시도하였다. 운양함은 서해안으로부터 항로의 측량에 종사하면서 강화도부근에 이르자 초지진(草芝陳)의 수비병이 발사를 하였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응전하고, 해병이 상륙하여 포대를 파괴하였고 이에 35명이나 죽었다. 이것이 유명한 운양호사건이다. 그 진상은 외부성(外部省)과 군부측(軍部側)의 내명(內命)으로 해로조사라는 구실아래 혼란을 일으켜 문호개방을 강요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본측의 고의도발이자 불법침입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강화도조약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갑자기 세계 통상권내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李鎭昊, 1989. 8).

② 강화도조약과 측량침략

1876년 2월 26일 한국측은 대조선국 대관 판중추부사(大朝鮮國 大官 判中樞府事) 신현과 도총부부총관 윤자승이고 일본측은 특명전권 관리대신(特命全權 辦理大臣) 이노우에와 체결한 강화도 조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과 동등권을 부여한다(제1조), 2. 20개월 이내에 부산 이외의 3항(港)을 열고 일본 상인의 거주, 무역의 편리를 제공할 것(제4·5조), 3. 일본은 조선의 연해·도시·암초 등을 자유로이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한다(제7조), 4. 일본은 조선이 지정한 항구에 영사를 파견하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 상인의 범죄는 일본 관원이 심판할 것 등이다.

조선국의 연해도서, 암초는 종전에 심검을 거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 해안을 측량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위치가 낮고 깊음을 자세하게 도지로 편찬, 양국 선객으로 하여금 위험을 피하여 안전하게 통상할 수 있도록 한다(李鎭昊, 1989, 7-9). 즉 일본은 양국의 안전 통상을 위하여 측량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운양호가 측량을 빌미로 군사침략을 하였다는 기록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③ 측량저항사

측량침략에 대하여 한국인은 일본 측량대에 맹렬하게 반항을 하였다. 침략사에서 측량 희생자가 127명이나 났다고 하며 그 중 전사 28명, 참사 16명, 상사(傷死) 1명, 즉사 14명 계 56명은 한국인의 저항으로 피살된 자들이다. 1895년에 일본은 3차례에 걸쳐 229명의 대원을 인솔하고 측량을 하러왔는데 이때에 대항이 특히 심하였다. 특히 함흥의 저항(1895, 10), 동래 창원의 저항(1895, 11), 제천의 변사(1896, 2), 여주의 피살(1896, 2)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일본의 측량반들은 한국의 저항을 매우 무서워하였으며 은밀하게 측량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가는 곳마다 군수의 대우가 매우 두렵고 군수로부터 각동에 명령하여 일본 측량대 일행의 편의를 제공 조금도 곤란이 없도록”하였다는 것이다. 백성은 저항하고 관청에서는 비호를 하였으니 손발이 맞지 아니한 것이다.

조야(朝野)간에 일본이 무엇 때문에 측량을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알아본 사실이나 측량의 필요성을 느껴 우리도 시행하지는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저항을 한편에서는 편의를 보여주는 가운데 일본은 그들이 필요한 지방의 측량을 완료한 것이다(李鎭昊, 1989, 19-23).

(3) 양지아문(量地衙門)의 설치

① 개화기의 직제

1898년 7월 6일 칙령 제25호로 양지아문직원 급 처무규정이 공포되었다. 양지(量地)는 지적측량이고 아문(衙門)은 중앙관서이니 현대어로 말하면 '지적측량청'이다. 그러나 이 기구는 4년이 못되어 폐지되고 말았다.

광무6년 1월 7일 관보에 의하면 양지아문 총재관 조동면과 부총재관 고영희가 사직상소를 올렸고 같은 날자에 민총목이 총재관으로 이용익이 부총재관으로 임명되었다.

② 양지아문 개설

1898년 7월 6일에 반포된 양지아문직원 급 처무규정은 매우 파격적이며 혁신적인 규정으로 요약하면 대개 이러한 것이다.

내부와 농상공부에서 요청한 측량을 시행하고, 총재관(3명)에는 대신의 봉급을 부총재관(2명)에게는 협판(協辦-차관)과 같은 봉급을 준다. 수기사(首技師) 1명은 외국인을 초빙하고 기수보(技手補) 10명 이내를 고용하여 20명을 견습시킨다. 양지아문 총재관은 각부대신과 동등하니 경무사(警務使-치안본부장), 한성판윤(漢城判尹-서울특별시장), 각 관찰사 이하 관리를 지휘감독하여 양지사무에 종사케 하되 잘못하면 소관부서에 이첩 처벌한다.

측량은 한성 오서(五署)로부터 시작하여 먼 지방으로 시행하여 나간다. 양지아문 기사가 지방 출장 갈 때는 순경이 보호한다. 의정부참정(議政府參政) 윤용선 명의로 공포된 이 규정은 막강한 기구다. 측량부서의 기관장을 세 사람씩 두고 대신 대우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예는 한국 역사는 물론 세계역사상에도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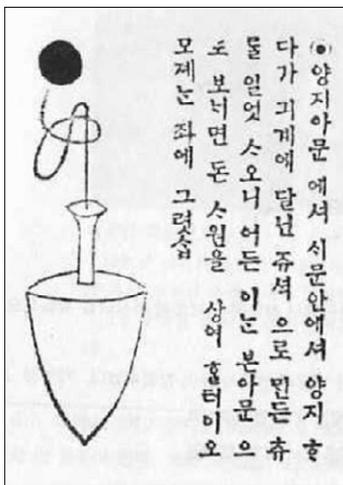
코리안 리포지토리(The Korean Repository) 1898년 7월호에는 토지측량국(Bureau of Land Survey-양지아문을 이렇게 번역하여 썼다)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싣고 뒤이어 칙령 제25호 전문(全文)을 영역하였다. 필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 기사를 요약하면 한국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시·도의 위치 도로망 등이 표시된 지도가 없어 안타까웠다는 것, 본토인 지도는 있지만 부정확하기로 악명이 높고 정부 문서참고에는 좋은 지도가 있겠지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폐하께서는 토지측량국 직제를 공포하였는데...우리 외국인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을 축하한다는 것이다(李鎭昊, 1989, 31).

③ 측량교육과 양지아문 폐지

현대측량은 1899년 4월 1일부터이고 시작한 장소는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측량기사인 크럼(R. Krumm)이 도착한 후 이 때까지 5개월 동안은 견습생들에게 이론교육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사는 다른 신문에도 나온다.

독립신문(광무 3년 4월 14일)에 의하면 <전국의 면을 칙량하랴고 양지아문을 설치하야 외국기사를 고빙하고 견습생을 곱앗치나 스무가 잘 되기는 슈년 간으로 기필키 어렵고...>하는 기사가 나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추원의 반대가 있었다. 즉, 독립신문(광무3년 4월 15일)에 실린 기사를 보면 중추원은 정부에 양지아문이 설치된지 해가 지나도록 하는 일이 없고 국고만 허비하니 혁파하자고 통첩하였다. 이에 양지아문 총재관은 정부에 대하여 각도 각 군수 중에서 발탁하여 양지감리를 임명하고 견습생을 뽑아 양지하는 법도를 가르치고 양지도 차차 시키라고 한고로 정부에서 중추원에 이 뜻을 보내니 의원들은 양지아문에서 맡은 일을 하려고 하니 혁파하지는 의안은 그만 두자고 의결하였다.

양지아문의 설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완책(인원선발, 경비 등)을 쓰기도 하였으나 1901년 양지아문은 폐지되고 말았다.



[그림 3-1] 미국인 측량기사 크럼과 학생들이 경성시내 측량을 하다가 잃어버린 추를 신문에 광고하였다.

자료: 황성신문 1899년 4월 29일

(4) 개화기의 지도

1876년 개항 이후 서구의 새로운 인쇄기술과 지도제작기술이 도입되었다. 『대조선국지도』(1890년대), 『대한여지도』(1900년 전후), 『대한전도』(1899년), 『대한제국지도』(1908년) 등이 있는데 종래의 목판인쇄에서 동판인쇄로 바뀌었다. 지형표현방법도 우모식 방법을 도입하였고 일부는 천문학적 경도와 위도를 도입하고 있다. 1910년 이후는 일본의 침략과 더불어 주로 일본인에 의해 서양의 정밀한 지도제작기술이 도입되어 현대 지도를 낳게 했다.

(5) 근대지도의 발달

① 근대적 측량과 그에 따른 지도제작 사업

18세기 초부터 서양세계에서는 측량에 의한 지도제작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측량사업은 조선 말기에 일본에 의하여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 사용할 목적으로 2백만분의 1의 한국전도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표고가 정확하지 못하였으므로 1895년 임시 측량반을 편성하여 평판측량으로 1:50,000 지도 54도엽을 완성하였으나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1896년에 그 사업을 일단 중지하고 1개반에 의해 1900년까지 1:20,000 지도를 만들었다.

② 일제시대 초기사업

1910년 우리나라를 합병한 일본은 조선총독부에 조선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그 밑에 총무과, 조사과, 기술과, 측지과, 제도과, 정리과의 6과를 두고 총원 3,000명, 연간예산 340만원 정도로 우리나라의 측지 및 지도제작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1911년에는 일본 육지측지부의 많은 군속기술자가 파견되었으며 측량에 사용된 장비나 작업 요령은 대체로 일본 본토에 준하였다. 1910년에서 1915년에 이르는 불과 6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220,891km²의 광대한 지역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을 짧은 기간에 완료하였다는 것은 매우 특기할만한 사실이다(국립건설연구소, 1972, 8-9).

그 당시 제작된 지도에는 1:50,000, 1:25,000, 1:20,000, 1:10,000 및 1:5,000이나 전국을 덮을 수 있는 축척은 오직 1:50,000이었고 기타는 주요도시 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한하고 있

[표 3-1] 1:50,000 기본도 제작

제작연도	도엽수	측량면적(km ²)	측량지역
1914	34	13,047	부산, 경주, 충주지방
1915	147	47,022	영덕, 상주, 울산, 영주, 삼척, 강릉, 홍성, 남양, 간성, 창성, 초산지방
1916	199	60,852	마산, 대구, 서울, 영월, 희천, 홍원, 평성, 강계, 장진, 후창, 백두산지방
1917	281	79,813	제주, 목포, 순천, 군산, 전주, 철원, 원산, 난암, 회령, 경원, 안주, 의주지방
1918	61	20,157	장산포, 해주, 신막, 곡산지방
총계	722	220,891	

자료: 김주환 외(1990), 123

었다. 1:50,000 지형도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5년간에 걸쳐 우리나라 전역의 722도엽을 평균측량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김주환, 강영복, 1990, 121).

1:5,000 지형도는 청진 및 난암지역 10도엽, 의주지방 9도엽, 함흥지방 9도엽, 평양지방 9도엽, 진남포지방 4도엽, 서울 및 인천지방 15도엽, 대전지역 12도엽, 군산지방 11도엽, 대구지방 6도엽, 목포지방 6도엽, 회령지방 9도엽, 영흥만 요새 근처 16도엽, 인천지방 3도엽 및 진해만 요새 근처 21도엽으로 합계 14지방 143도엽을 1:50,000 제작과 거의 동시대에 완성하였다. 1:10,000 지형도는 인천, 부산, 진해, 마산, 통영, 옥도대야도, 웅기~난암 부근의 군사상 중요지구 7지역 51도엽과 주요부 등 합계 63도엽이 주로 1:20,000과 같이 제작되었으며 이외에도 1903년에 이미 진해만 부근과 가덕도 근처의 8도엽에 대한 지도가 제작되어있었다. 이러한 지도는 1~4색도로 4×6판에 인쇄되었고 서울은 국판으로 4도엽, 평양은 4×6판으로 2도엽으로 발행되었다. 그 외 나진 부근에는 1:5,000 지형도 10개 도엽이 발행되었으나 확실한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밝힐 수가 없다.

2) 근대지도의 분류

(1) 지도의 특성

지도는 지역 공간현상의 투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등 땅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 각인(刻印)된 그림이며 정보이다.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제작된 지도들도 특정지역의 역사적 변화를 보여주는 옛 지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 시기는 파괴와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로 상징되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교량과도 같은 시기이다(이찬·양보경, 1995, 122).

근대의 지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축척과 크기에 따라 대축척지도와 소축척지도, 판종(版種)에 따라 필사본지도와 목판본 등 인쇄본지도, 채색여부에 따라 채색지도와 단색지도, 제작과정에 따라 실측지도와 편집지도, 제작자에 따라 관찬지도와 민간에서 편찬한 민간지도, 제작목적과 내용에 따라 일반도·군사지도·행정지도·특수도로, 또 제작시기, 소장처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에 제작된 서울 고지도를 형태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할 경우 다음과 같다. ㉗ 단독서울지도, ㉘ 지도책 또는 지도첩 속의 서울지도, ㉙ 지지(地誌) 또는 문헌(文獻) 속의 서울지도, ㉚ 삽도(挿圖) 또는 부분도(部分圖)로서의 서울지도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분류는 지도의 성격, 제작 목적·형태·내용의 상세함과 소략함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보편적으로 지도는 표현할 내용이나 사용목적에 따라 크게 일반도와 주제도로 나눈다. 일반도는 한 장의 지도 위에 여러 가지 자연현상과 인공적인 요소를 가미한 지도로서, 땅의 고저·기복, 하천, 식생, 도로, 취락, 행정경계, 교통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일반도에는 나라 전체의 모습을 그린 조선전도(朝鮮全圖)가 있고 각 지역을 그린 지방도가 있다. 일반도는 지리정보의 저장 기능이 강조되므로 축량·제작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주제도는 1~3가지 특정사항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지도로서, 인구분포도, 산업도, 토지이용도, 교통망도, 항해용해도, 전쟁지도, 각종 계획도 등 다양하고 특정정보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지도이다.

우리나라 근대지도는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제작 발행된 지도로서 한반도 전체의 모습을 그린 조선전도와 각 지역을 그린 도별도, 그리고 식민지의 현황파악과 정책수립을 위한 주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주제도는 다시 그 제작의도와 쓰임새에 따라 산업분포도, 철도교통지도, 제국주의 전쟁수행을 위한 정세지도,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행지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지도들은 모두 일본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침탈과 식민지 통치라는 목적에 맞게 대량 제작되었다.

(2) 근대지도의 제작

조선 말기에는 토지제도의 문란으로 소유권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탁지부를 비롯한 관청에 지적(토지)에 관한 사무를 보게 하였으나 개혁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한제국시대에 이르러 지도제작에도 근대적인 방법이 전래되었다. 소위 삼각측량이라는 정확한 실측에 의한 근대지도가 제작되었는데 1899년에 발행된 『대한전도』가 그것이다.

① 『대한전도』

『대한전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최초의 근대식 지도로서 현대식 측량을 담당하는 ‘양지아문’에서 제작하였다. 이 지도는 지도의 윤곽과 경위선 표시, 그리고 기호화된 범례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근대식 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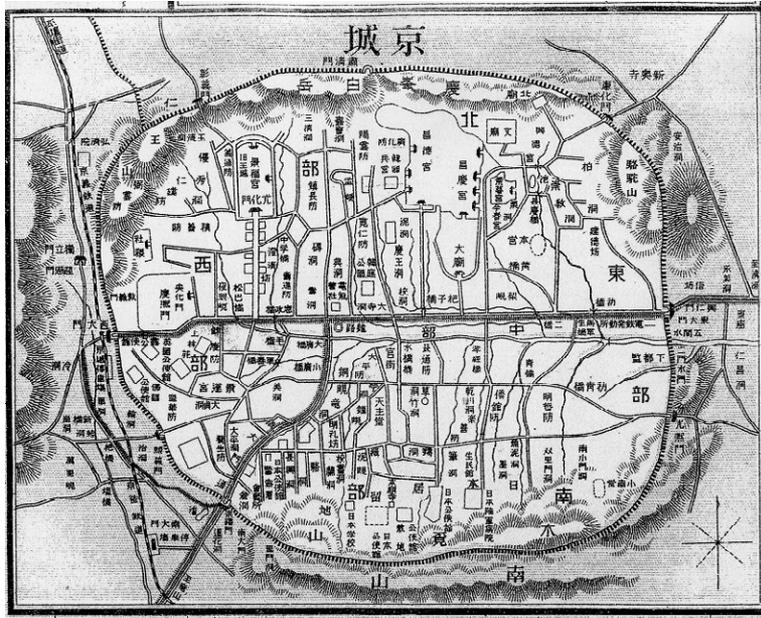
조선의 이 지도는 전통적인 지도제작방식에 일본을 통해 도입된 서양지도학의 기법이 가미되어 제작되었다. 지형표시를 우모식(羽毛式)으로 표현하고 경도·위도가 나타나고, 측량을 통해 해안선을 정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 군사시설, 도로 및 다양한 인문학적 정보를 범례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전통적인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던 일본의 대마도가 동남쪽 모서리에 그려져 있다거나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지형도 자세하게 그린 전도도 많이 제작되는데 이는 이 시기에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지도로 본 일본의 조선지배

식민지의 현황 파악과 정책활용을 위한 지도로는 산업분포도를 들 수 있다. 산업분포도는 한 나라의 공업, 상업, 농업, 수산업 등 산업 전반에 관한 자원분포도를 말한다. 일제강점기 제작된 산업분포도는 식민지인 조선의 현황을 파악하여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식민지 경제수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작되었다. 따라서 지도 속에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경제수탈 정책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③ 서울지도

경성(京城) 『대한제국지도(大韓帝國地圖)』의 삽도(挿圖)인 「서울지도」(동판본, 11.1×13.3cm, 尹炯斗 소장)는 1908년에 일본 유학생 현공렴(玄功廉)이 제작한 『대한제국지도(大韓帝國地圖)』의 우측 하단에 삽입된 서울의 도성 안을 자세히 그린 지도이다. 현공렴은 같은 해에 학생용 지리교과서와 지도책을 펴냈으며, 그 지도책의 경기도 지도에 같은 「경성(京城)」도 삽입되어 있다. 도성



京城(大韓帝國地圖)의 挿圖 銅版本, 玄公廉, 1908年. 11.1×13.3cm. 尹焯斗 所藏.
 Kyōnsōng. Map of Seoul in Taehan-jeguk chido. Copper plate print by Hyōn Kong-nyōm in 1908 A.D.
 11.1×13.3cm. Yoon Hyung-doo Collection.

[그림 3-2] 서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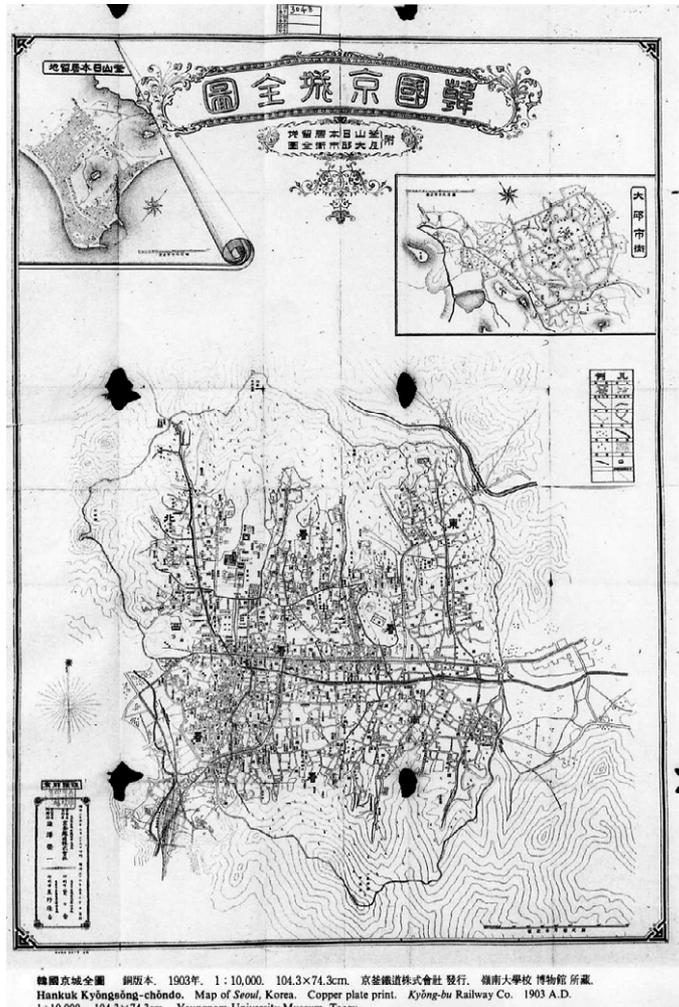
자료: 이찬·양보경(1995), 71.

안의 가로망과 하계망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으며, 오부(五部)와 방(坊)·동명(洞名)이 기입되어 있고, 전차궤도와 경의·경부선이 표시되어 있다. 당시의 경성정거장(경성역)은 현재의 서울역 자리가 아닌 서대문 남쪽, 이화여고 서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의선 철도가 현재의 독립문 동측을 거쳐 무악재로 넘어가도록 표기한 것은 오류일 것이다. 그러나 이 지도에는 오류도 많다. 즉, 안암동(安岩洞)이 안치동(安治洞), 응봉(鷹峯)이 경봉(慶峯)으로 표기된 것은 그 보기이다. 『대동여지도』, 『대한여지도(大漢與地圖)』 등에 삽입된 『한양경성도(漢陽京城圖)』에는 '낙타산'이 모두 '타락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낙타산'으로 표기된 지도는 『서울지도』(그림 4-1)와 이 지도 정도이다.

지도를 그리는 기법(技法)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을 거쳐서 도입된 우모식(羽毛式) 지형표시를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다. 발행은 서울의 박문서관(博文書館)이나, 인쇄처는 일본으로 되어 있다(이찬·양보경, 1995, 71).

④ 한국경성전도

『한국경성전도(韓國京城全圖)』(동판본, 1903, 1:10,000, 104.3×74.3cm, 京釜鐵道株式會社 발행,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는 1903년에 일본 경성철도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등고선이 들어있는 1만분의 1의 서울지도이다. 이 지도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서울지도가 아닌 현대적인 측량성과를 이용한 도성 안과 용산의 일본 거주지역을 포함한 지도이다. 도성도(都城圖)는 모두가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도성을 그리고 있으나, 이 지도에서는 도성의 형태가 북쪽이 넓고 남쪽이 좁게 되



[그림 3-3] 『한국경성전도』

자료: 이찬·양보경(1995), 72.

어 있으며 종로를 경계로 하면 남북이 반드시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도의 상단여백에는 ‘대구시가도(大邱市街圖)’와 ‘부산일본거류지(釜山日本居留地)’가 삽도로 들어가 있다. 이 지도는 일본이 작성한 초기의 측량성과를 이용한 지도로 사료된다. 서울의 하위 행정구역인 5서(五署)의 경계와 방(坊)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다(이찬·양보경, 1995, 72).

3) 소결

우리나라의 근대지도의 발달은 개화기 이후이며 근대적인 측량에 의한 지도의 대부분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일본은 합방을 하기 전에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강화도조약을 맺고 측량을 빙자하여 침략을 하려는 계획을 하였다. 우리정부에서는 개화기에 양지아문이라는 지적측량청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폐지하였다. 양지아문에서는 측량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지도제작에 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근대초기에 일본인들은 평판측량에 의하여 우리나라 전국을 측량하였으며 1:50,000 지형도 722도엽도 완성하였다.

근대지도의 분류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축척과 크기에 따라 대축적지도와 소축적지도, 판종에 따라 필사본지도와 목판본지도 등 인쇄본 지도, 채색여부에 따라 채색지도와 단색지도, 제작과정에 따라 실측지도와 편집지도, 제작자에 따라 민간지도와 관찬지도, 제작 목적과 내용에 따라 일반도, 군사지도, 행정지도, 특수도로, 또 제작시기와 소장처 등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김주환

참고문헌

- 국립건설연구소, 1972, 한국지도소사, 1-18.
- 김주환, 강영복, 1990, 地圖學, 신라출판사, 120-126.
- 이진호, 1989, 大韓帝國 地籍 및 測量史, 土地, 7-38.
- 이찬·양보경, 1995, 서울의 옛 地圖, 서울학연구소, 71-72.